

밀의 정신적 위기와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

Mills Mental Crisis and Wordsworths Poetic Thoughts

저자 (Authors)	박찬길 Chankil Park
출처 (Source)	19세기 영어권 문학 23(1) , 2019.3, 33-65(33 pages)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In English 23(1) , 2019.3, 33-65(33 pages)
발행처 (Publisher)	19세기영어권문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In English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3494
APA Style	박찬길 (2019). 밀의 정신적 위기와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 19세기 영어권 문학, 23(1), 33-6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39 2019/05/21 20: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밀의 ‘정신적 위기’와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

박 찬 길

I. 밀의 ‘정신적 위기’와 워즈워스의 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¹⁾이 스무 살 무렵 크나큰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는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밀 자신이 『자서전』(*Autobiography*)에서 이를 직접 밝힌 이래 수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과 성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십대의 한 젊은이가 ‘정신적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할 게 없지만, 그 에피소드가 내내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이유는 그 당사자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함께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이끌었던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밀은 스코틀랜드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서 지역 독지가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장로교 목사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제도권 종교와 귀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프리랜서 문필가 겸 행정가로 입신했던 인물이었다.²⁾ 그는 자신의 개혁적 성향 때문에 자연

1) 이후 존 스튜어트 밀은 밀로, 제임스 밀(James Mill)은 제임스 밀로 칭함.

2) 제임스 밀과 밀의 삶에 대해서는 카팔디(Nicholas Capaldi)의 전기와 디마티스(Philip B Dematteis)의 책 중 밀과 제임스 밀의 항목을 참고함.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상세하게 조명한 연구로는 마즈리쉬(Bruce Mazlish)의 책 참조.

스럽게 벤담의 문하생이자 평생 동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밀이 어린 시절부터 매우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된 배경이었다. 제임스 밀은 비국교도(dissenter)로서의 신념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일반 학교나 대학에 보낼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밀을 비롯한 아홉 명의 자식에게 재택학습(home schooling)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도 장남이었던 밀은 아버지의 집중적인 개인교습의 대상이었다. 『자서전』에 자세히 소개되는 바, 밀의 독서목록과 학습 진도는 가히 전설적이다. 세 살에 그리스어 공부를 시작했고, 여덟 살에 라틴어를 읽었으며, 열 살 때부터는 그의 아버지의 대표작인 『영국령 인도의 역사』(*The History of British India*)의 집필과정에 참여할 정도로 밀은 이미 십대 초반에 지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Janes 107-18; Roellinger 246-59).

밀의 교육과정이 특별한 것은 믿기 어려운 조기성(早期性)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상적 일관성과 목적지향성 때문이기도 하다. 제임스 밀의 개인교습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상적 후계자, 즉 철학적 급진주의를 전파하고 실현할 미래의 개혁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³⁾ 밀 자신이 설명하고 있듯이, 제임스 밀은 로크(John Locke)의 경험주의철학을 받아들여 인간이 ‘백지상태’(tabula rasa)로 태어난다고 생각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들에 의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봤다. 제임스 밀은 자신의 아들을 이러한 사상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교육실험의 대상, 즉 일종의 “시범사례가 될 만한 아들”(the son of demonstration)로 키우고자 했다(Dematteis 138). 이런 의미에서 『자서전』의 ‘정신적 위기’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교육실험의 실패를 뜻하기도 했다(Green 260). 밀은 『자서전』 5장에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분석의 습관”(habits of analysis)이 모든 “감정들”⁴⁾을 소진시켰으며, 그 결과 자신의

3) 제임스 밀은 벤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밀을 “우리 두 사람의 훌륭한 계승자”(a worthy successor to us both)로 키우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Stewart 369).

4) 이 글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지칭하는 철학적(혹은 문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각 단어마다 철학적 전통에 따라 그 함의가 매우 달라서 적절한 우리말 역어를 찾기 매우 어렵고, 철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번역어를 사용했다. 쾌락/고통(Pleasure/Pain), 감정(Feeling), 정서(Emotion), 정념(Passion), 감성(Sentiment), 감수성(Sensibility), 기쁨(Joy),

모든 쾌락과 욕망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 제거된 쾌락과 욕망에는 타인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동일시하는 공감의 쾌락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혁가의 욕망도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삶의 의지와 지향점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말한 것이다(Mill, *Autobiography* 80-85).

밀은 자신의 '정신적 위기'가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아버지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구해져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버지"를 대신할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였다. 밀이 워즈워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시기는 1828년 가을이었다(Mill, *Autobiography* 88). 이때는 이미 워즈워스의 전성기가 훨씬 지난 시기였고, 그의 정치적 보수화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워즈워스는 1813년에 이미 지역유지였던 론즈데일(Lowther Lonsdale)의 도움으로 정부의 한직(閒職)인 "인지발행인"(a distributor of stamps)에 취임했고, 1818년에는 그의 아들을 도와 국회의원 선거에 찬조연설을 하는 등, 과거의 급진주의 공화주의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Moorman 60-63, 242-44, 344-55). 아버지의 교육방식과 벤담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진보적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밀이 딱히 이 시점에 워즈워스에게 끌렸다는 것은 그 시점의 이념적 지형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다. 밀은 여전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철학적 급진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이런 입장에서만 보자면 보수화된 워즈워스 보다는 끝까지 개혁적 이념을 견지했던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이나 셸리(Percy Bysshe Shelley)가 밀에게 더 잘 맞지 않았겠는가? 밀은 워즈워스를 읽기 전에 바이런을 모두 읽었지만, 큰 감명을 받지 못했고, 워즈워스의 경우도 1814년에 출간한 『유람』(*The Excursion*)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밀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것은 1815년에 간행된 워즈워스의 『시집』(*Poems*)이었는데, 이것은 워즈워스의 초기 시 전체를 망라한 전집 성격의 작품

즐거움(Enjoyment), 환희(Delight), 행복(Happiness), 이념(Idea), 생각(Thought), 명상(Contemplation). 또 영어의 단수와 복수를 우리말 번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말에서도 복수로 표현했다. Culture/Cultivation 역시 밀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독일의 'bildung'(Bildung)과 연관되는 핵심어이다. 여기에서는 "육성"(育成)이라는 역어를 사용했다.

집이었다. 그중에서도 밀에게 특별히 큰 기쁨을 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들이었다. 하지만 밀의 기쁨은 아름다운 시골경치 때문만은 아니었다.

워즈워스의 시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치료하는 약이 된 것은 그 시들이 단순히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자극된 감정의 상태, 그리고 그런 감정이 물들인 생각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시들은 바로 그 감정의 **육성(育成)**인 것 같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 시들 속에서 **내면적 기쁨의 원천, 공감과 상상력에 의한 쾌락의 원천**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그러한 기쁨과 쾌락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투쟁이나 불완전함과 상관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물질적 혹은 사회적 조건이 개선될수록 항상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쁨과 쾌락이었다. 나는 그의 시에서 삶의 더 큰 해악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 같았다. . . . 나는 고요한 명상 속에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했다. 워즈워스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공통의 감정들과 공통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게 했다. 그리고 이 시들이 가져다 준 환희를 통해서 이런 [감정의]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석의 버릇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필자강조)

What made Wordsworth's poems a medicine for my state of mind, was that they expressed, not mere outward beauty, but states of feeling, and of thought coloured by feeling, under the excitement of beauty. They seemed to be **the very culture of the feelings**, which I was in quest of. In them I seemed to draw from **a source of inward joy, of sympathetic and imaginative pleasure, which could be shared in by all human beings**; which had no connection with struggle or imperfection, but would be made richer by every improvement in the physical or social condition of mankind. From them I seemed to learn what would be the

perennial sources of happiness, when all the greater evils of life shall have been removed. . . . I needed to be made to feel that there was real, permanent happiness in tranquil contemplation. Wordsworth taught me this, not only without turning away from, but with a greatly increased interest in, the common feelings and common destiny of human beings. And the delight which these poems gave me, proved that with culture of his sort, there was nothing to dread from the most confirmed habit of analysis. (Mill, *Autobiography* 89) (My emphasis)

밀을 치유한 것은 시를 읽는 행위나 시가 가져다주는 심미적 기쁨 자체가 아니라 풍경을 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의 상태”(states of feeling) 혹은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은 “생각”(thought)의 상태였다. 밀은 워즈워스의 시에서 묘사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자극되어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이 만들어지는 정신적 과정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이다. 밀은 이러한 미학적 인식이야말로 자신의 공리주의적 교육이 고갈시킨 감정을 다시 생성해낼 수 있는 사유의 방식이라고 느꼈다. 밀은 워즈워스의 시에서 이러한 미학적 인식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고, “고요한 명상” 속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지나간 ‘정신적 위기’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Capaldi 55-85; Robson 21-49; Mazlish 205-30).

『자서전』의 이러한 주장은 훗날의 밀이 공리주의의 결함을 낭만주의로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것을 통해 자신의 통합적인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밀은 자신의 이념적 ‘낭만화’라고도 부를 수 있을 그 긴 여정 맨 앞에 워즈워스를 특정하여 제시했던 것이다. 밀의 이러한 주장은 워즈워스 시의 치유적 효과(Pladek 403-04)를 증언하는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이지만, 이미 오십세에 접근했던 밀이 회고한 삼십년 전의 얘기를⁵⁾ 문자 그대로 믿어도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도대체 밀이 워즈워스에게 배웠던

5) Capaldi에 의하면 밀이 『자서전』의 초고를 완성한 것은 그가 50세가 되는 1856년이었다(235).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어떤 작품의 어떤 대목이 그런 치유적 효과를 발휘했는가? 밀이 『자서전』 5장에서 특정하여 언급한 유일한 시는 「송가, 영원성에 대한 예감」(“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이었는데(Wordsworth, *The Poems* 523-2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편』의 결론부에는 제목이 플라톤적이라고 잘못 붙여진 유명한 송가 “영원성에 대한 예감”이 나온다. 그 시에서 보통 때보다 더 감미로운 멜로디와 리듬을 느끼며, 그리고 위대한 이미지로 되어있지만 잘못된 철학으로 채워진 그 자주 인용되는 두 소절을 읽으며, 나는 그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젊은이 특유의 그 최초의 풋풋함이 지속되지 않음을 그 역시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상하는 법을 탐색했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발견했다. 그는 그때 나에게 그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 방식**을 가르쳐주었다. 그 결과 나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나의 고질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며, 다시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필자강조)

At the conclusion of the *Poems* came the famous Ode, falsely called Platonic, “Intimations of Immortality”: in which, along with more than his usual sweetness of melody and rhythm, and along with the two passages of grand imagery but bad philosophy so often quoted, I found that he too had had similar experience to mine; that he also had felt that the first freshness of youthful enjoyment of life was not lasting; but that he had sought for compensation, and found it, **in the way in which** he was now teaching me to find it. The result was that I gradually, but completely, emerged from my habitual depression, and was never again subject to it. (Mill, *Autobiography* 90). (My emphasis)

문제는 밀이 「송가, 영원성에 대한 예감」에서 발견했다는 “바로 그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밀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즈워스도 자신과 비슷한 경

힘을 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정말로 비슷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워즈워스가 이 시에서 아쉬워했던 것은 불멸의 영혼, 즉 '탄생 이전의 존재'(pre-existence)에 대한 본능적 인식이 성장과 더불어 희미해졌다는 것이었고, 밀의 문제는 과도한 "분석의 습관"이 모든 "감정"을 고갈시켰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고도의 본능"(high instinct)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ideas)처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예감"(intimations)이었다면 밀에게 결핍된 "감정"은 사회적 개혁이라는 현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인간성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밀이 여기서 말했던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밀이 진짜로 워즈워스에게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워즈워스의 시학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다.⁶⁾ 이것을 위해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밀의 토론원고 「워즈워스와 바이런」(Mill, *The Collected XXVI* 434-42)을 워즈워스의 시론 「『서정담시집』 서문」("Preface to *Lyrical Ballads*")과 비교하며 살펴볼 것이다 (Wordsworth, *Lyrical* 233-58). 이것은 밀이 워즈워스에게 배웠다는 "공감과 상상력이 주는 쾌락의 원천"(Mill, *Autobiography* 89)의 철학적 함의를 연상주의의 맥락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밀이 워즈워스에게 빚진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적시(摘示)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밀이 『자서전』에서 워즈워

6) 이것은 물론 밀의 사상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과제였다. 최근에도 이에 관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대부분 그 해답을 위해 워즈워스의 시나 시학을 연구하기 보다는 밀의 '낭만화' 과정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매키넬(Liz Mckinnell)의 글은 밀이 워즈워스에게서 얻은 "그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phronisis*(practical wisdom)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밀이 얻은 교훈을 또 다른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시도였을 뿐 그것이 워즈워스의 시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다. 스튜어트(Robert Scott Stewart)의 글은 밀이 워즈워스의 상상력개념을 도입해서 공리주의에는 없었던 이타적 쾌락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워즈워스의 어떤 부분이 그런 상상력을 자극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 밀이 워즈워스 시 속에서 접한 새로운 미학적 경험의 작동방식을 기존의 연상주의 심리학과 다르게 설명하려는 앤더슨(Elizabeth S. Anderson), 폴(L. A. Paul), 파크허스트(Bryan Parkhurst)의 글도 모두 철학적 개념을 자기 나름으로 정의하거나 규명함으로써 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지만, 왜 딱히 워즈워스의 시가 그런 작용을 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밀과 워즈워스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한다.

스 시의 치유적 효과를 설명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감정의 육성”이 훗날 밀의 사상적 발전과정에서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지 탐구한다.⁷⁾ “바로 그 감정의 육성”은 결국 밀의 미학교육론의 일부가 되며⁸⁾ 이것은 그가 1867년에 했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명예총장 취임연설」(“Inaugural Address Delivered To The University of St. Andrews”)(Mill, *The Collected XXI* 215-57)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이 연설문의 일부를 워즈워스의 시 「틴턴애비」(“Tintern Abbey”)의 한 구절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것이다(Wordsworth, *Lyrical* 110-15). 이러한 분석은 결국 밀이 ‘보상과 처벌’을 기초로 하는 공리주의의 도덕교육(Habibi 63-72; Heydt 49-54)을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에 내재된 낭만주의적 교육이념으로 대치하고자 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밀이 워즈워스 시학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7) 밀의 “공감”도 최근 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적인 주제였다. 그린(Michele Green)의 글에서는 밀이 워즈워스에게서 배운 “공감”은 결국 흄(David Hume)과 스미스(Adam Smith)의 같은 개념을 반복한 것이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을 제시한다(Green 276). 이것은 워즈워스와 밀의 관계를 심리적 “버릇”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페리(Seamus Perry)의 글이나 워즈워스와 스미스의 수사법에서 같은 종류의 “공감”을 발견하는 리치(William Richey)의 글, 그리고 워즈워스의 시론에 내재한 공리주의적 원리에 천착하는 코구치(Ichiro Koguchi)의 글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하지만, 번스톤(Daniel Burnstone)의 강력한 비판을 받는다. 번스톤이 보기엔 밀이 말한 “감정의 육성”에는 개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사회적 개혁 같은 공공적 의미와는 무관하며, 밀의 윤리적 생각은 워즈워스와는 무관하게 발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Burnstone 89). 구스타프슨(Andrew Gustafson)은 이러한 번스톤의 주장을 다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밀이 말하는 “공감”은 워즈워스, 코올리지, 아놀드(Matthew Arnold)로 연결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공감론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반론을 편다(Gustafson 841). 폴 역시 그린에 대한 번스톤의 비판을 반박하는 긴 주석을 붙였다(Paul 101).

8) 후양(Chun Huang)의 글은 밀로부터 시작해서 아놀드, 러스킨(John Ruskin)으로 연결되는 미학교육론의 전통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밀의 도덕적 상상력을 미학교육론으로 설명한 헤이트(Colin Heydt)의 책과 워즈워스의 연상주의적 미학의 윤리적 의미를 묻는 룡(Wing Sze Leung)의 글은 모두 밀과 워즈워스가 미학적 인식과 그 도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II. 밀의 워즈워스론:

“즐거움의 초과상태”(an overbalance of enjoyment)

밀은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의 ‘정신적 위기’를 그 원인과 배경, 증상과 경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다. 밀이 『자서전』 초고를 완성한 1856년은 그로부터 거의 삼십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고, 『자서전』의 이러한 설명은 스무 살 당시의 밀보다는 쉰 살의 밀의 해석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밀의 사상적 편력을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위기’가 발생한 1826년부터 1840년까지 워즈워스, 코울리지(S. T. Coleridge), 셸리, 카알라일(Thomas Carlyle) 등의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물려받은 공리주의에 매우 분명한 수정을 가한 것이 틀림없다면, 이를 개혁운동의 입장에서는 ‘보수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Kinzer 112-204). 그렇다면 ‘보수화’된 밀이 셸리나 바이런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변절자로 비난받던 워즈워스를 이 시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에는 일종의 정파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밀은 1829년 1월 30일에 있었던 “런던토론모임”(London Debating Society)에서 “워즈워스는 바이런보다 더 위대한 시인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Mill, *The Collected XXVI* 434-42; Kinzer 51). 바이런은 국내에서의 추문 때문에 이탈리아에 머물며 일종의 망명자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타협하지 않는 진보적 신념과 문학적 명성에 힘입어 사후에도 국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Franklin 84-96). 반면에 워즈워스는 일련의 ‘보수화’ 행보로 인해 진보진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Gill 10-28). 따라서 토론에 참여했던 밀의 친구 로벅(John Arthur Roebuck)과 스티링(John Sterling) 등 다른 토론자들은 둘을 비교하는 진지한 문학적 토론보다는 워즈워스를 조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에 밀은 이들의 경박한 논평을 준엄하게 반박하면서 바이런에 대한 워즈워스의 상대적 우위뿐 아니라, 시인 워즈워스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Mill, *The Collected XXVI* 434-35).

밀은 우선 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우아한 오락에 불과하다는 식의 세간의 여론을 반박한다. 밀은 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분과이며 지적인 훈련보다 더 긴요한 감정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밀에 의하면 워즈워스의 탁월함은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워즈워스보다 바이런을 더 좋아하는 것은 바이런의 시에 분명한 즐거위와 강렬한 감정(주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Mill, *The Collected* XXVI 434). 하지만 두 시인의 우열을 확실하게 가려주는 것이 바로 그 “감정”에 대한 묘사인데, 워즈워스의 특별 감정묘사에는 전혀 없는 진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각에 의해 자극되는”(excited by thoughts)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Mill, *The Collected* XXVI 441). 밀이 이러한 주장은 워즈워스의 그 유명한 시론과 직접 연결된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넘쳐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조금이라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들은 보통보다 더 유기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더 **길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감정들의 유입을 **우리의 생각들이 변형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며, 그 생각들은 사실상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감정들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필자강조)

For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but though this be true, poems to which any value can be attached, were never produced on any variety of subjects but by *a man*, who being possessed of more than usual organic sensibility, **had also thought long and deeply**. For our continued influxes of feelings are **modified and directed by our thoughts**, which are indeed the representatives of all our past feelings. (Wordsworth, *Lyrical* 251-52) (My emphasis)

좋은 시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감흥의 표현이 아니라 “길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시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은 반드시 “생각”을

통해 “변형”하고 “관리”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워즈워스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감정들은 결국 마음속에서 “생각”들로 응결되고, 이 생각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숙고하다 보면,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의 감정 자체가 그런 중요한 문제들 자체와 자연스럽게 결부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일정한 “마음의 버릇”(habits of mind)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버릇”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워즈워스가 말하는 진정한 시인인데, 이런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시를 써도 그의 시를 읽는 독자들이 “어느 정도 계몽되고 감성이 개선”(in some degree enlightened, and his affections ameliorated)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워즈워스의 유명한 「『서정담시집』 서문」의 핵심이었다(Wordsworth, *Lyrical* 252; Owen 37-114). 이것은 초기 워즈워스의 시론이 연상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면서(Mazlish 222), ‘정신적 위기’ 이후에도 연상주의의 기본을 유지하고 있었던 밀에게 애당초 왜 워즈워스가 왜 특별하게 매력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Hatherell 232-34, Hayden 103-04).

밀은 워즈워스의 시가 흔히 보여주는 자연과의 교감을 “과장과 신비화”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본 워즈워스의 시론과 거의 같은 어휘와 논리를 구사하며 옹호한다. 밀은 감정을 “묘사”(describe)하는 것과 “분석”(analyse)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특정한 일련의 연상작용”에 부적절하게 오래 노출된 결과, 자기도 모르게 그 연상작용을 통해 감정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뒤, 사후에 그것을 억지로 “설명”(explain)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비화”라는 오명을 들어 마땅하지만, 감정과 사물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a natural connexion)을 볼 줄 아는 워즈워스 같은 시인은 “그 안에서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것”(something spiritual and ideal in them which the mind's eye only can see)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비난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Mill, *The Collected* XXVI 440). 이러한 밀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분명하게 연상주의 심리학의 개념을 활용한 워즈워스의 시론을 따 오면서도 “연상”과 “마음의 버릇”이라는 연상주의적 용어를 워즈워스가 아니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시인들의 “분석”과 “설명”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정작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론에서 “계몽”과 “감성의 개선”이라는 공리주의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반해, 밀의 경우에는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것”이라는 매우 낭만주의적 어휘로 워즈워스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다. 밀은 워즈워스에게서 연상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고 최초의 친화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워즈워스 시의 반연상주의적 본질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연상주의로부터의 탈출구로 활용했다. 밀은 워즈워스가 “철학적” 수사에 빠져드는 것을 다소 우려했지만, 여전히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상태”(a state of feeling)를 강력하고도 감동적으로 묘사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ill, *The Collected* XXVI 440). 이것은 앞서 살펴봤던 『자서전』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목이며, 밀에게는 이것이 벤담의 공리주의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인식의 경지였음이 분명하다.

밀은 워즈워스의 시가 보여준 그 특정한 “감정의 상태”를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다른 평자들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면서 그것이 워즈워스에게만 특별하게 가능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적 상태임을 강조한다. 워즈워스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서 반복하여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며, 『자서전』에서는 이것을 “바로 그 감정의 육성”(the very culture of the feelings)이라고 표현했었다. 밀은 워즈워스의 시가 갖는 그러한 실천적인 힘을 그의 위대성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이 토론에서는 그 “육성”이 실제로 독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서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워즈워스에게 배웠다. 어떤 생각에 깊게 몰두함으로써 사물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정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서를 항상 새롭게 유지할 수 있고, **쾌활하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거의 모든 대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 혹은 다른 감각이 있는 존재들의 즐거

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다른 존재들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를 증강하는⁹⁾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아울러 인간성의 나쁜 부분이 주는 고통 보다 좋은 부분이 주는 쾌락이 더 많도록 만듦으로써 동료 인간들에 대한 모든 혐오와 경멸의 감정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기도 했다. 전례가 없어서 묘사하기 어렵지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변했다. 쉽 없이 계속 움직일 것을 요구받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가? 이런 감정의 상태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사회에서는 더 강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강조)

I have learned from Wordsworth that it is possible by dwelling on certain ideas to keep up a constant freshness in the emotions which objects excite and which else they would cease to excite as we grew older **to connect cheerful and joyous states of mind with almost every object**, to make every thing speak to us of our own enjoyments or those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o multiply ourselves as it were in the enjoyments of other creatures: to make the good parts of human nature afford us more pleasure than the bad parts afford us pain** and to rid ourselves entirely of all feelings of hatred or scorn for our fellow creatures. Immense importance of this state of mind—difficulty of painting it because no prototype. My own change since I thought life a perpetual struggle—how much more there is to aim at when we see that happiness may coexist with being stationary and does not require us to keep moving. This state of feeling to be looked to as

9) “multiply”는 기본적으로 수 혹은 양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어서, 밀 자신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말하자면”(as it were)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밀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모든 자연물들과 “즐거움” 속에서 교감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확장되고 강화되는 경험을 자신이 “multiply”되는 경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를 “증강”이라고 번역했다. 이는 물론 최근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라는 신조어의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다.

an end, for I fear in the present state of society something stronger is required. (Mill, *The Collected XXVI* 441) (My emphasis)

이 인용문은 토론을 위한 발제문의 원고이기 때문에 출판된 글에 비해 문법적인 정확성이나 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자서전』에서 밝힌 위즈워스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바로 그 감정의 육성”의 함의를 더 명확하게 한다. 밀이 포착한 위즈워스 시의 핵심은 그의 시가 어떤 “감정의 상태” 혹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생각”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틀리(David Hartley)의 연상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감정’은 물리적인 감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각’은 여러 ‘감정’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기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연상작용’이라는 것이었다(Hayden 95-98).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의 결과가 그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면 ‘쾌락’을, 이익에 반하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원칙이었다. 따라서 연상주의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의 요인들과 연상법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감정의 주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Donner 10-23). 밀이 위즈워스의 시에서 주목한 것은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 특정한 ‘감정’ 혹은 ‘정서’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보존 혹은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¹⁰⁾ ‘정신적 위기’에 빠진 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의 능동성이었다. 여기에서 ‘생각’은 물론 위즈워스가 보여준 자연의 대상들에 대한 시적 사유, 즉 미학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시적 사유의 대상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밀이 주목한 것은 꽃, 나무, 바위, 시냇물 같은 자연적 물체들이었다. 이러한 자연적 물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시인의 시적 사유에 의해 ‘아름다움’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의 정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인의 결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10) 밀은 위즈워스의 특이성은 “그의 감정이 다른 시인들보다 더 많이 생각에 의해 자극된다는 점이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금석(his feelings are excited by thoughts more than those of poets usually are – which is the test of the highest state of mind)”이라고 주장했다(Mill, *The Collected XXVI* 441).

행해진 시적 사유, 즉 미학적 인식의 결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체 자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시인은 “쾌활하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거의 모든 대상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거의 모든 대상들”은 시인의 시적 사유에 의해 “즐거움”과 연결되고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 그 “대상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즐거움”뿐 아니라 “다른 감각이 있는 존재들”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시적 사유에 의해 우리 정신의 내부에 “만들어진” “즐거움”이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에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확산의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를 “증강”한다. “즐거움”의 확산과 우리 자신의 “증강”이라는 선순환의 구조야말로 밀이 『자서전』에서 말했던 “공감과 상상력에 의한 쾌락”이 “모든 인간들에게 공유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쾌락을 오로지 개인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이해하는 공리주의의 협소한 셈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¹¹⁾

공리주의가 도덕적 원칙으로서 갖는 가장 큰 고민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과 남의 이익,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벤담이 파악하는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쾌락을 느끼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들에게 남의 이익에 쾌락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벤담이 생각하는 최선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성적 판단에 의해 받아들이도록 계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몽의 방법론은 결국 보상과 처벌이 최선이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이었다(Habibi 63-72). 밀은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를 기반으로 이러한 공리주의의 기본적 원칙

11) 밀이 워즈워스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연상주의 심리학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밀이 완전히 낭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도너(Wendy Donner)는 연상주의비판과 관련하여 낭만주의의 연상주의 비판을 대표하는 코울리지와 밀의 입장을 세밀하게 비교·구분하고 있다. 도너에 따르면, 코울리지는 훌륭한 시의 창작을 위해서는 미학적 인식 정도가 아니라 상상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비해, 상상력의 의미를 코울리지보다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밀은 감정과 생각이 조화롭게 활성화되면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상상력 같은 특별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101-02).

을 부정한 것이다. 시적 사유의 결과로 우리가 “증강”되는 경험 속에서 밀은 “고통”보다 “쾌락”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는 “동료인간들에 대한 모든 혐오와 경멸의 감정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공리주의의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던 그 당시에 밀은 워즈워스의 시를 자신의 철학적 딜레마에 대한 탈출구로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성의 나쁜 부분이 주는 고통보다 좋은 부분이 주는 쾌락이 더 많도록 만듦”이라는 표현은 밀의 벤담주의적 바탕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시인의 임무를 “즐거움의 초과상태”(an overbalance of enjoyment)를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한 워즈워스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Wordsworth, *Lyrical* 248). 워즈워스는 『서정담시집』 서문에서 “당장의 쾌락”(immediate pleasure)을 만드는 것이 시인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시인을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단언한다.

그것(시인의 임무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볍고 쉬운 임무이다. 나아가 그것은 인간이 원래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해서, 즉 인간이 알고, 느끼고, 살고, 움직이는 데 언제나 작용하는 장엄하고 기본적인 쾌락의 원리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쾌락에 의해 전파되지 않는 공감은 없다. 쾌락에 의해서 구성되고, 우리 내부에서 오로지 쾌락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 말고 다른 지식이나 . . . 다른 일반 원칙들은 없다. . . .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하는가? 그는 자기 주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과 물체들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무한하게 얽혀있는 고통과 쾌락의 복합체를 만든다. . . .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나 자신 안에서 즉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을 발견하며, 그 공감들에는, 자신의 본질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즐거움의 초과상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필자강조)

It is an acknowledgment of the beauty of the universe . . . it is a task light and easy to him who looks at the world in the spirit of love: further, it is a homage paid to the native and naked dignity of man, to

the grand elementary principle of pleasure, by which he knows, and feels, and lives, and moves. We have no sympathy but what is propagated by pleasure. . . . We have no knowledge, that is, no general principles... but what has been built up by pleasure, and exists in us by pleasure alone. . . . What then does the poet? He considers man and the objects that surround him as acting and re-acting upon each other, so as to produce an infinite complexity of pain and pleasure . . . finding everywhere objects that immediately excite in him sympathies which, from the necessities of his nature, are accompanied by **an overbalance of enjoyment**. (Wordsworth, *Lyrical* 248) (My emphasis)

이처럼 쾌락을 모든 지식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삶을 “고통과 쾌락의 복합체”로 파악하는 워즈워스의 세계관은 그대로 벤담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즈워스가 벤담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그러한 세계에서 시인이 하는 일을 규정하는 대목에서이다. 시인은 자신의 본질에 비추어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능동적인 존재이고, 어디에서나 “즉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바로 그 “공감”은 “자신의 본질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즐거움의 초과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즐거움의 초과상태”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자칫 시인 특유의 과장된 수사법으로 이해하기 쉽지만,功利주의의 용어를 엄두에 둔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통보다 쾌락이 많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 功利주의의 원칙에서는 어떤 행동의 가치가 고통과 쾌락의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워즈워스가 말하는 즐거움의 “초과상태”란 하나가 커지는 만큼 다른 하나가 줄어들어야 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¹³⁾이 아니라 시인의 정신적 상태에 따라 한 쪽, 즉 즐거움과 쾌락이

12)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overbalance”는 “무게, 가치 혹은 양”의 “초과”(excess) 혹은 능가(preponderance)를 의미하며, 로크(John Locke)가 그러한 뜻으로 사용한 예가 있다.

13) 경제이론에서 각 참가자의 효용의 소득과 손해가 다른 참가자들의 효용의 소득과 손해와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가리키는 수학적 표현.

<https://en.wikipedia.org/wiki/Zero-sum_game>.

그 반대편에 있는 고통의 다과와 상관없이 무한히 커지고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워즈워스는 여기서 시인의 본질을 벤담의 이른바 ‘쾌락계산’(felicific calculus)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뜻에서 밀이 워즈워스를 ‘정신적 위기’의 결정적인 해결사로 지목한 것은 자신의 ‘보수화’된 철학적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절자’ 워즈워스를 정파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당시의 밀이 이미 공리주의를 원천적으로 넘어서는 워즈워스 시학의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밀은 이십대 초반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반된 철학적 원칙들의 지향성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해안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철학적 예지력을 바탕으로 벤담의 공리주의를 과감하게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Habibi 73-89). 그리고 그 수정작업에 가장 큰 방향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즐거움의 초과상태”를 불러오는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였다.

III. 밀의 미학교육론과 워즈워스의 시적 사유

밀은 자신을 정서적 탈진상태로 몰아넣었던 ‘정신적 위기’의 와중에서도 벤담과 제임스 밀이 설정해 준 ‘개혁가’로서의 삶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방법론이었다. ‘보상과 처벌’이라는 공리주의적 ‘계몽’의 방식만으로는 모든 개인들이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를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러한 철학적 곤경이 밀을 워즈워스에게 인도했던 것이다.

물론 워즈워스의 시들이 직접적으로 계몽적 의도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때 개혁가의 삶을 꿈꾸었던 워즈워스의 문학적 목표는 언제나 독자들을 문학적으로 계몽하는 것이었다.¹⁴⁾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시적 교육은 그의 시적 상

14) 워즈워스는 1795년에 고드윈(William Godwin)의 영향을 받아 친구와 함께 『자선가』(Philanthropist)라는 잡지를 기획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

상력의 본질이며 시적 수사의 기본적 토대이기도 했다(Bialostosky 425-30). 워즈워스는 『서정담시집』 서문에서 그의 시에는 언제나 “합당한 목적”(a worthy purpose)이 있으며, 그것은 “흥분된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올바르게] 연관되는 방식을 예로서 보여주는 것”(to illustrate the manner in which our feelings and ideas are associated in a state of excitement)이라고 말한 바 있다(Wordsworth, *Lyrical* 238). 이 『서정담시집』의 경우에는 천박하고 조야한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분별력을 잃고 거의 “야만적 무감각”(savage torpor)에 빠진 대중들의 마음의 감수성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감수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시인은 건강한 정서와 생각들이 올바른 종류의 자극을 받아 제대로 연관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예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비된 감수성을 되살리는 것이 시 창작의 목표라는 것이다(Wordsworth, *Lyrical* 239). 핵심은 시인이 먼저 자신의 시적 사유의 ‘시범’을 보이고, 그러한 사유의 방식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시적 사유는 필연적으로 “즐거움의 초과상태”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고, 독자들이 시인의 ‘시범’을 따라 하기만 하면, 시인 자신처럼 “즐거움의 초과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그들의 마비된 감수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¹⁵⁾ 워즈워스는 그의 시론에서 이 과정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제 자연이 그렇게 작용한 한 존재가 자연의 조심스러운 배려에 따라 그대로 즐거움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인은 그렇게 제시된 교훈을 쉽

다. “나는 대중들이 어둠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번개가 내는 빛이나 허망한 번쩍거림, 혹은 덧없는 유성의 불빛에 의지하여 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 하나하나의 손에 횃불을 들려주고 싶다”(박찬길, 『고드윈주의』 251-52 재인용).

- 15) 워즈워스가 이러한 믿음을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한 곳이 『틴턴사원』의 이른바 “도로씨 부분”(Dorothy's Part, 113-60)이다. 워즈워스는 틴턴사원 근처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에 힘입어 정신적인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황폐해진 자신의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마지막 대목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자기와 함께 경험한 도로씨에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긍정적인 성장의 경험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기원하고 있다.

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즉 그가 독자에게 어떤 정념을 전달하든, 독자의 마음이 건전하고 활기 있는 상태라면, 그 정념에는 언제나 **쾌락의 초과상태**가 수반되어야 한다. (필자강조)

Now, if nature be thus cautious in preserving in a state of enjoyment a being thus employed, the poet ought to profit by the lesson thus held forth to him, and ought especially to take care, that whatever passions he communicates to his reader, those passions, if his reader's mind be sound and vigorous, should always be accompanied with **an overbalance of pleasure**. (Wordsworth, *Lyrical* 252) (My emphasis)

여기 나오는 “쾌락의 초과상태”는 지금까지 썼던 “즐거움의 초과상태”를 공리주의적 어휘로 반복한 것이며,¹⁶⁾ 밑은 이것에 힘입어 인생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인생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를 증강하는 법”을 배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공리주의적 인간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도덕관, 즉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 혹은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워즈워스 역시 자신의 시가 가져 올 미학적 경험의 도덕적 효과를 언제나 확신했다(O'Neill 79-83). 가령 워즈워스는 자신이 방문했던 와이계곡의 아름다운 경치가 가져온 효과를 「틴턴사원」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 아름다운 형상들 . . .
 나는 그것들 덕택에
 지루한 시간에도 달콤한 감흥을 느꼈다.
 핏속에서 느꼈고, 핏줄을 따라 심장에서도 느꼈다.
 그리고 나의 더 순수한 마음까지 흘러들어와

16) 워즈워스는 이 대목보다 조금 먼저 같은 표현을 썼다. “시의 목적은 **쾌락의 초과상태**와 공존하는 흥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필자강조) (The end of Poetry is to produce excitement in coexistence with **an overbalance of pleasure**)(Wordsworth, *Lyrical* 247) (My emphasis).

고요한 회복을 가져왔다. 아울러
 기억되지 않는 쾌락에 대한 감정도 가져왔다.
 그건 어느 착한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한 대목,
 그의 작고, 이름 없는, 기억되지 않는,
 친절하고 사랑스런 행동들에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그런 감정이었다.

These forms of beauty . . .
 I have owed to them,
 In hours of weariness, sensations sweet,
 Felt in the blood, and felt along the heart;
 And passing even into my purer mind,
 With tranquil restoration—feelings too
 Of unremembered pleasure; such, perhaps,
 As may have had no slight or trivial influence
 On that best portion of a good man's life;
 His little, nameless, unremembered, acts
 Of kindness and of love. (ll. 25, 27-36)(Wordsworth, *Lyrical* 111)

이 시를 썼던 1798년 여름은 워즈워스에게도 시련과 절망의 시기였다. 그해 1월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스위스침공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거둘 수밖에 없도록 했고, 도로씨(Dorothy Wordsworth), 코울리지와 함께 퀸톡 언덕(Quantock Hills)에서 형성했던 문학적 공동체는 1년 만에 해체되었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장래를 알 수 없는 독일로의 망명길이었다(Moorman, *The Early Years* 321-407). 먼 길을 떠나기 전 방문했던 와이계곡(Wye Valley)의 아름다운 경치는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미학적 인식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상기하도록 했다. 그 경치의 아름다움이 일깨운 “달콤한 감흥”은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흘러들어와 “고요한 회복”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 “회복”된 사람은 물론 이 시의 화자 워즈워스였다. 하지만 이 “달콤한 감흥”은 “기억되지 않는 쾌락에 대한 감정”도 가지게 했는데, 이때 “기억”과 “쾌락” 그리

고 “감정”의 주체는 딱히 워즈워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워즈워스의 그 “감정”은 특정되지 않은 어떤 “착한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감정”과 “착한 사람”의 “감정”이 유비관계로 설정되면서, 워즈워스의 “감정”이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인 결과와 “착한 사람”의 “감정”의 미학적인 원인이 동시에 연상된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쾌락”과 “착한 사람”의 “행동”이 “기억되지 않는”이라는 똑같은 형용사로 수식되면서 화자의 미학적 쾌락은 특정되지 않은 타인의 도덕적 행동과 더욱 확고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수사적 전략이 가져오는 결과는 처음에는 일인칭 화자로 한정되었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쾌락”의 주체가 그 도덕적 함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삼인칭 불특정 다수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밀이 워즈워스에게 배웠다고 하는 “다른 존재들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증강되는” 미학적 경험이고 개인의 이익을 다수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공감과 상상력에 의한 쾌락”의 시적 표현이라 할 만 하며, 동시에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를 통해 의도한 도덕적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Chandler 57-83).

밀은 워즈워스의 초기시를 읽으면서 그의 시적 사유에 자신에게 필요한 도덕적 욕망과 계몽적 본질이 내재되어있음을 정확하게 통찰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적 사유 자체가 현실적인 개혁의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모든 사람이 밀 자신처럼 워즈워스의 시의 감화력을 느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런던토론회”의 토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밀의 과제는 자신이 워즈워스 시를 통해 얻었던 “다른 존재들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를 증강하는” 경험을 현실사회에서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밀이 ‘정신적 위기’를 겪었던 1820년대는 대중에 대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었던 시기였고, 1826년에는 벤담과 제임스 밀의 주도로 대중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유니버시티 컬리지(University College)가 창립된 해이기도 했다. 밀이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같은 해에 “런던토론회”에서 대학 커리큘럼의 적정성을 놓고 토론한 것을 보면, 밀 역시 당시의 대학논쟁의 맥락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밀은 여기에서 수학과 고전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었지만, 가령 워즈워스를 대학의 과목

으로 가르친다는 식의 발상은 아직 하기 어려웠다. 새로 만들어진 유니버시티 컬리지와 킹즈 컬리지(King's College)에서는 영어영문학과를 창설하기도 했지만, 영시를 본격적인 과목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다(Ward 405-36, 박찬길 「제도로서의 영문학연구」 15-25). 하지만 밀은 '정신적 위기'의 시기로부터 워즈워스뿐만 아니라 코울리지, 카알라일,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 등 일련의 낭만주의적 문사(文士)들과 긴밀하고 교류하며, 워즈워스에게서 배운 이러한 시적 사유를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자신의 독창적인 미학교육론으로 발전시켰다(Heydt 47-79, Huang 20-86). 밀은 1865년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초대 명예총장(Rector)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취임연설에서 자신의 미학교육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플라톤, 데모스테네스, 타키투스에게서도 고양된 감정들을 얻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철학자나 웅변가 혹은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시인이고 예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적 육성**이 길러 내는 것은 고상함, 영웅적 감정 같은 것들만이 아니다. 시적 육성의 힘은 영혼을 고양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크게 발휘된다. 더 고양된 정서만큼이나 더 온화한 정서를 복돋는데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중 **이기적이지 않은 측면**을 포착하여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손해에 일치시키도록 유도**하는 인생의 모든 국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시켜준다. . . . 단테나 워즈워스의 강의를 듣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필자강조)

We may imbibe exalted feelings from Plato, or Demosthenes, or Tacitus, but it is in so far as those great men are not solely philosophers or orators or historians, but poets and artists. Nor is it

17) 밀은 1826년 4월 7일에 “런던토론회”에서 “우리 대학들이 추구하는 체계가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토론했다(Mill, *The Collected* XXVI 348-58).

only loftiness, only the heroic feelings, that are bred by **poetic cultivation**. Its power is as great in calming the soul as in elevating it. — in fostering the milder emotions, as the more exalted. It brings home to us all those aspects of life which take hold of our nature on its *unselfish side*, and **lead us to identify our joy and grief with the good or ill of the system of which we form a part**. . . . Who does not feel a better man after a course of Dante, or of Wordsworth . . . ?
(Mill *The Collected XXI* 255) (My emphasis)

밀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시적 육성, 즉 미학적 교육의 핵심은 위즈워스의 시적 사유가 그러했듯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보통의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이타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배양한 어떤 감정 안에서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비이기적 요소들이 자극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과 손해가 마치 우리 자신의 일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건전한 종류의 연상작용’을 도덕적인 자각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벤담의 문제는 그것을 위해 ‘보상과 처벌’이라는 인위적 수단을 써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계몽수단 대신 “쾌락의 초과상태”를 만들어 내는 “시적 육성”을 내세운 것이다. 밀은 훗날 이러한 미학적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쾌락을 “고상한 쾌락”(Higher Pleasure)으로 부르며 공리주의의 일반적인 쾌락과 구분했다(Crisp 19-43, Vergara, section 2). 이러한 “고상한 쾌락”의 원천은 물론 위즈워스의 시와 같은 뛰어난 예술작품이고, 이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그 개인의 도덕적 삶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밀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철학적 방식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말하자면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육성하는 것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동질성이 있다. 그것이 아무런 지침 없이 본능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욕성이기만 하다면 말이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은, 만일 그 사람이 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자기욕성의 시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인간의 성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자기 앞에 세워두고자 한다.

There is, besides, a natural affinity between goodness and the cultivation of the Beautiful when it is real cultivation, and not a mere unguided instinct. He who has learnt what beauty is, if he be of a virtuous character, will desire to realize it in his own life – will keep before himself a type of perfect beauty in human character, to light his attempt at self-culture. (Mill, *The Collected XXI* 255)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이기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처벌과 보상으로 건전한 연상을 억지로 주입할 것이 아니라 시를 읽혀야 하고, 그 안에 구현된 아름다움을 이해시킴으로써 스스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도록 유도하며, 그러한 성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이익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밀이 '정신적 위기'의 와중에 워즈워스의 시에서 읽어낸 "공감과 상상력에 의한 쾌락"의 본질이며, 그의 시가 가르쳐준 "다른 존재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를 증강하는" 경험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듯 밀은 자신이 이십대 초반에 워즈워스의 시 속에서 발견했던 시적 사유의 힘을 단지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 치료법이나 물질주의에 치우친 공리주의에 대한 이념적 균형추로만 활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자 개혁가로서 품어왔던 사회개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동력으로 삼게 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위즈워스의 시를 읽고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밀의 주장을 위즈워스의 시학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밀이 1829년 1월 30일에 작성한 토론문 「위즈워스와 바이런」을 위즈워스의 시론 「『서정담시집』 서문」과 비교하면서 분석했다. 여기서 우리는 밀이 오십세에 완성한 『자서전』과 이십 대 초반에 작성한 토론원고 「위즈워스와 바이런」 사이에 그 핵심적 내용과 어휘구사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음을 발견했고, 두 글 모두에 위즈워스 시학의 반공리주의적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밀의 통찰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은 위즈워스가 시적 사유를 통해 이끌어내는 “쾌락의 초과상태”가 벤담의 공리주의적 가치론에 대한 철학적인 부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고자 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밀이 『자서전』에서 말했던 “바로 그 감정의 육성”의 실천적 의미를 밀의 미학교육론을 통해 탐색했다. 이를 위해 밀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명예총장 취임연설」을 위즈워스의 「틴틴애비」와 함께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서 위즈워스 시의 계몽적 성격이 밀의 미학교육론으로 충실하게 계승·발전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미학적 인식을 통해 인류의 행복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위즈워스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밀의 주장이 실제로 매우 견고한 문학적·철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으며, 밀과 위즈워스의 만남은 밀의 사상적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화여대>

인용 문헌

- Alexander, Edward. "Mill's Theory of Culture: The Wedding of Literature and Democracy."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A Canadian Journal of the Humanities* 35 (1965): 75-88.
- Anderson, Elizabeth S. "John Stuart Mill and Experiments in Living." *Ethics* 102.1 (1991): 4-26.
- Bialostosky, Don. "Wordsworth, Allan Bloom, and Liberal Education." *The Centennial Review* 33.4 (1989): 419-40.
- Burnstone, Daniel. "'The very Culture of the Feelings': Poetry and Poets in Mill's Moral Philosophy." *Utilitas* 4.1 (1992): 81-104.
- Capaldi, Nicholas. *John Stuart Mill: A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Chandler, James K. "Wordsworth, Rousseau and the Politics of Education." *Romanticism: A Critical Reader*. Ed. Duncan Wu. Oxford: Blackwell, 1995. 57-83.
- Coleridge, Samuel. *Lyrical Ballads*. Eds. R. L. Brett, A. R. Jones. London: Methuen, 1968.
- Crisp, Roger. *Routledge Philosophy Guide Book to Mill on Utilitarianism*. London: Routledge, 1997.
- Dematteis, Philip B., Fosl, Peter S., McHenry, Leemon B. *British Philosophers, 1800-2000*. Detroit: Thomson Gale, 2002.
- Donner, Wendy. *The Liberal Self: John Stuart Mill'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thaca: Cornell UP, 1991.
- Feagin, Susan L. "Mill and Edwards on the Higher Pleasures." *Philosophy* 58.224(1983): 244-52.
- Franklin, Caroline. *Byr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 Gill, Stephen. *Wordsworth and the Victorians*. Oxford: Clarendon, 1998.

- Green, Michele. "Sympathy and Self-Interest: The Crisis in Mill's Mental History." *Utilitas* 1.2 (1989): 259-77.
- _____. "Sympathy and the Social Value of Poetry: J. S. Mill's Literary Essays."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A Canadian Journal of the Humanities* 60.4 (1991): 452-68.
- Gustafson, Andrew. "Mill's Poet-Philosopher, and the Instrumental-Social Importance of Poetry for Moral Sentiment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7.4 (2009): 821-47.
- Habibi, Don A. *John Stuart Mill and the Ethic of Human Growth*. Dordrecht: Kluwer, 2001.
- Hatherell, William. "'Words and Things': Locke, Hartley and the Associationist Context for the Preface to Lyrical Ballads." *Romanticism* 12.3 (2006): 223-35.
- Hayden, John. "Wordsworth, Hartley, and the Revisionists." *Studies in Philology* 81.1 (1984): 94-118.
- Heydt, Colin. *Rethinking Mill's Ethics: Character and Aesthetic Education*. London: Continuum, 2006.
- Huang, Chun. *Beauty for the Present: Mill, Arnold, Ruskin and Aesthetic Education*. Durham University, 2012. Web.
 <http://etheses.dur.ac.uk/3612/1/Dissertation-Chun_Huang.pdf?DDD11+>.
- Janes, George M. "John Stuart Mill's Education." *Quarterly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21 (1931): 107-18.
- Kinzer, Bruce L. *J. S. Mill Revisited: Biographical and Political Explor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Koguchi Ichiro, コグチ イチロウ. "Utilitarian Principles in Wordsworth's Literary Theory: Paley, Godwin and the 'Preface to Lyrical Ballads.'" 大阪大學大學院言語文化研究科 編. 『言語文化研究』(2011): 163-77. Web.
 <https://ir.library.osaka-u.ac.jp/repo/ouka/all/24689/slc_37_163.pdf>.

- Leung, Wing Sze. "The Ethical Importance of the Beautiful: Wordsworth's Revision of Hume's Associationist Aesthetics in the 1805 *Prelude*." *Interdisciplinary Literary Studies: A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17.1 (2015): 86-109.
- Mazlish, Bruce. *James and John Stuart Mill: Father and So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75.
- Mckinnell, Liz. "'A Medicine for My State of Mind': The Role of Wordsworth in John Stuart Mill's Mor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Utilitas* 27.1 (2015): 43-60.
- Mill, Anna J. "John Stuart Mill's Visit to Wordsworth, 1831." *The Modern Language Review* 44.3 (1949): 341-50.
- _____. "The First Ornamental Rector at St. Andrews University: John Stuart Mill." *The Scottish Historical Review* 43.136 (1964): 131-44.
- Mill, John Stuart. *Autobiography*. Ed. Jack Stillinger. Oxford: Oxford UP, 1971.
- _____, Bentham, Jeremy. *Utilitarianism and Other Essays*. Ed. Alan Ryan. Harmondsworth, and New York: Penguin, 1987.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I: Essays on Law, Equality, and Education*. Ed. John M. Robson. Toronto: U of Toronto P, 1984.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VI-XXVII: Journals and Debating Speeches*. Ed. John M. Robson. Toronto: U of Toronto P, 1988.
- _____. *The Earlier Letters of John Stuart Mill 1812-1848*. Ed. Francis Mineka. Toronto; London: U of Toronto P; Routledge & Kegan Paul, 1963.
- _____.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 Ed. F. R. Leavis. Cambridge: Cambridge UP, 1980.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Later Years 1803-1850*. Oxford: Oxford UP, 1965.
- _____.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Oxford UP, 1968.
- O'Neill, Michael. "Poetic Education: Wordsworth, Yeats, Coleridge and Shelley." *The Wordsworth Circle* 46.2 (2015): 79-86.
- Owen, W. J. B. *Wordsworth as Critic*. Toronto: Toronto UP, 1971.
- Parkhurst, Bryan. "Poetry as Panacea: Mill on the Moral Rewards of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47.2 (2013): 16-34.
- Paul, L. A. "The Worm at the Root of the Passions." *UTILITAS* 10.1 (1998): 83-104.
- Perry, Seamus. "Wordsworth, Mill, and the Force of Habit." *The Wordsworth Circle* 42.2 (2011): 116-22.
- Pladek, Brittany. "'Soothing Thoughts': Romantic Palliative Care and the Poetics of Relief." *European Romantic Review* 23.3 (2012): 403-13.
- Richey, William. "The Rhetoric of Sympathy in Smith and Wordsworth." *European Romantic Review* 13.4 (2002): 427-43.
- Robson, John Mercel., Mill, John Stuart. *The Improvement of Mankind: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John Stuart Mill*. Toronto: Toronto UP, 1968.
- Roellinger, Francis X. "Mill on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4 (1952): 246-59.
- Stewart, Robert Scott. "Utilitarianism Meets Romanticism: J. S. Mill's Theory of Imagination."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0.4 (1993): 369-88.
- Vergara, Francisco. "Bentham and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Centre Bentham, 2011. Web. <<https://journals.openedition.org/etudes-benthamiennes/422>>.
- Vogler, Candace A. *John Stuart Mill's Deliberative Landscape: An Essay in Moral Psychology*. New York; London: Garland, 2001.

Ward, John Powell. ““Came from Yon Fountain”: Wordsworth’s Influence on Victorian Educators.” *Victorian Studies* 29.3 (1986): 405-36.

Woof, Robert, ed. *William Wordsworth: The Critical Heritage*, Vol. I: 1793-1820. London: Routledge, 2004.

Wordsworth, William. *The Poems* 1. Ed. John Hayden. Harmondsworth: Penguin, 1982.

박찬길. 「제도로서의 영미문학연구, 역사와 현실 ; 초기 영문학의 발생과 전개: 아담 스미스에서 헨리 뉴볼트까지」. 『안과밖』 22 (2007): 10-37.

_____. 「워즈워스의 코드원주의」. 『영어영문학』 43.2 (1997): 237-54.

Mill's 'Mental Crisis' and Wordsworth's Poetic Thoughts

Abstract

Chankil Park

This paper is to reexamine Mill's own account of his 'mental crisis' in his autobiography with reference to Wordsworth's poetics. How truthful could we take his recollection about what he had gone through 30 years ago? If there were anything he had learnt from Wordsworth at all, what exactly was it? In the introductory section, I went through Mill's famous tribute to Wordsworth in his *Autobiography*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its use of Wordsworthian terms such as feelings, pleasure, and sympathy. Mill's honest acknowledgment of Wordsworth's beneficial influence left no room for doubt, which however does not provide us with any concrete details about it. In the first main section, I compared Mill's recollection of *Autobiography* and his debate manuscript "Wordsworth and Byron" composed a few months later than "the autumn of 1828" when his first impressive encounter with Wordsworth's poetry was made. The comparison showed that there was a great extent of consistency in basic assumptions and terminology in the two texts, which made Mill's recollection much more credible than before. Both texts do present Mill's clear-headed insight into Wordsworth's anti-Bentham poetics couched within his unexpectedly Benthamite vocabulary. Wordsworth's idea of "overbalance of enjoyment(pleasure)," in particular, proved very useful to Mill because it reminded him of their share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associationism. It was also the most powerful weapon for Mill in his mental struggle against the curse of the "habit of analysis" inculcated by his father. In the second main section, I explored the social dimension of what Mill termed as "the very culture of the feelings" in my reading of Mill's "Inaugural Address delivered to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in comparison with Wordsworth's "Tintern

Abbey.” I find that the elements of enlightenment inherent in Wordsworth’s poetic practice were wholly taken into Mill’s theory of aesthetic education which he systematically developed into a university curriculum recommended in his inaugural address. In this context, Mill could be nominated as the real inheritor of Wordsworth in the reform movement because both tried to reach the end of social reform through the aesthetic education of the public. Mill’s alleged intellectual debt to Wordsworth is found to be more solidly grounded than usually thought, by which we could more safely argue that Wordsworth was indeed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Mill’s philosophy of liberalism.

- ▶ 주제어: 밀(John Stuart Mill)의 정신적 위기,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공리주의(Utilitarianism), 연상주의(Associationism), 감정의 육성(The Culture of the Feelings), 미학적 교육(Aesthetic Education)

논문 투고 일자: 2019. 02. 19.

심사 완료 일자: 2019. 03. 11.

게재 확정 일자: 2019. 03. 12.